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또한 '칠칠절'(출 34:22)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예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있는 설교를 하였을 때 3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은 교회가 메시아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으로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2023 홍해작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새벽 기도회 : 6. 6(화) - 6. 17(토) 새벽 5시 30분 - 6시
특별새벽 기도회 : 6. 19(월) - 6. 24(토) 새벽 5시 - 6시 / 강사 : 손달익 목사

2023년 홍해작전이 6. 4(주) 찬양예배 시 개 전예배를 시작으로 20일간 '말씀과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6. 6(화) - 6. 17(토)은 새벽 5시 30분 - 6시까지 대면 및 영상 중계로 드리지며 6. 19(월) - 6. 24(토)은 새벽 5시 - 6시까지 손달익 위임목사를 강사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잠자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새벽을 깨우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주제 성구 :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마 8:7)"
- 주제 찬송 :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 본부장 : 서은석 장로
- 지 도 : 김익환 목사
- 차 장 : 김은석 안수집사
- 기획분과 : 이결순 / 임승한 김대훈
- 예배분과 : 채교전 / 주일 1·2·3부 주일 찬양예배 예배위원
- 찬양분과 : 김정훈 / 각 찬양대 대장
- 동원분과 : 임우택 / 각 교구 간사·다락방장
- 홍보분과 : 김애리1 / 김규태 허숙 김영숙 유은경
- 봉사분과 : 한상준 / 권사회장·빌립·안드레 모세·루디아·리브가
- 차량분과 : 장창수 / 정성우 오교식 이용길 스테반회 차량관리부
- 재정분과 : 정완진 / 양승호
- 교육분과 : 장윤기 / 옥종호 임대중 이승준 각 교회학교 부장

제16대 장로로 백도환 안수집사 피택



백도환 안수집사

지난 5월 21일(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제 16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총 279명의 공동의회 회원(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이 참석하여 OMR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여, 1차 투표에서 기호1번 백도환 안수집사가 188표 (2/3는 186표)를 얻어 피택되었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2차 투표에서 2/3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사전 공고된 바에 따라 더 이상의 투표 없이 공동의회가 폐회되었습니다. 교회 일정에 따라 백도환 안수집사는 6월 29일(목) 시작되는 서울강남노회 제30기 장로 임직자 훈련과정과 서울교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장로고시를 거쳐 오는 11월 26일 서울교회 창립 32주년 기념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제 16대 장로로 임직할 예정입니다.

6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

6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가 6월 첫 번째 토요일인 6월 3일(토) 오전 6시에 열립니다. 6월을 맞아 새롭게 온 가족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하나님께 필요한 분이십니까?

(창 24:10-14)



손달익 위임목사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필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꼭 필요한 분으로 사십니까?”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사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고향의 처녀를 며느리로 맞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여행을 하기에 너무나 늦었고 마땅히 심부름을 시킬 친척도 없는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늙은 종을 불러 이 일을 맡겼습니다. 이 종은 낙타 열 마리에 짐을 싣고 길을 떠나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우물가에서 기도하던 그 종은 물 길러 나온 처녀 리브가를 만났고 마침내 그를 이삭의 배우자로 선택하여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늙은 종은 그의 임무를 무사히 수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대를 이어가는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늙은 종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간 이름 없는 종이었습니다.

1. 신뢰감이 있는 삶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혼인은 아브라함의 삶에 마지막 숙제처럼 주어진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2절). 이 늙은 종이 누구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창 15:1-3에 기록된 사람으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한때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그가 누구였던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매우 깊은 신뢰를 얻고 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신뢰란 두 가지 기초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도덕성과 정직입니다. 창 39:4절 이하에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했고 6절에도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간섭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그의 능력과 정직한 인격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뢰의 관계란 신앙의 근본 원리입니다. 신앙은 먼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아는대서 출발하며 예수를 믿는 일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우리 구주이심을 아는대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보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신뢰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충성할 것을 믿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한 주님의 신뢰에 감동하여 평생을 충성하려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을 가능케 하는 것입

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시는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이 그를 신뢰했고 그는 주인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2. 기도하는 사람

막중한 책임을 안고 먼 길 걸어 아브라함의 고향 마을인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한 종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모든 것보다 기도를 앞세웠습니다. 이 종의 기도는 생각이 깊은 기도요 논리적 사고가 포함된 기도였습니다. 흔히 신앙은 사람의 생각이나 논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반지성적이거나 반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성(Reason)이란 추론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앙은 늘 생각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성적 검토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역시 생각 없고 방향 없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자기 인격과 의지를 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응답하시기를 즐겨워하십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15절). 이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우물가에서 기도하던 종은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물을 조금 달라 했을 때 리브가는 그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처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의 동생 가족을 만나게 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26-27절) 감사와 기쁨으로 그들의 집으로 들어간 종에게 리브가의 가족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찾아온 듯 반가워하고 환대했습니다. 낙타들을 쉬게 하고 발 씻을 물을 내오고 음식을 대접하려 하자 그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33절)라고 합니다. 자기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음식부터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사명 수행을 위해 여기 왔음을 명심하고 일을 수행하는 것에 최우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사명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고 그 귀한 생명을 바쳐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생명과 사명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사명은 그 생명을 바쳐 감당해야 할 더욱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신뢰, 기도, 헌신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전형으로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실천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작전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김은석 안수집사
(홍해작전 차장)

요즘 제 목상의 주제는 주일예배를 제외한 예배와 기도회의 의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예배는 내 믿음생활에서 어떤 의미인가?'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신학적 고민을 통해 정했음에 대한 예식들이 과연 내가 시간이 되면 가고, 상황이 안되면 못 가는 취사

선택의 문제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어보고자 최근 저녁 찬양예배와 새벽기도회, 그리고 수요일예배를 모두 참석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면 늘 은혜가 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그에 대한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6월 6일(화)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홍해작전 때문입니다. 홍해작전 알림글을 요청받고 '홍해작전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지? 나는 과연 홍해를 건넜나? 홍해작전이 끝나고 내 어려움과 걱정과 고민이 해결된 적이 있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지난 주일 위임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저에게 "아!"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회복이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과거와 비

교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회복하려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이전과 다른 새롭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홍해를 건너고도 하면서도, 어느새 애굽으로 돌아가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와중에도 룯의 아내처럼 헛된 것들로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에 미련이 남아 자꾸 뒤돌아 보게 됩니다. 몸은 홍해를 건너고 하면서도 마음은 애굽에 있으니, 그간의 홍해작전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하는 단순히 고된 연례행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HIIT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고 들어보셨나요?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의 운동과 긴장을 늦추지 않는 휴식을 반복하는 최근 유행하는 운동법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아내와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무지하게 힘들지만 운동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해마다 찾아오는 홍해작전이 가나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

닫기 위한 영적 HIIT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완전히 뿌리내리지는 못했지만,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저는 건강한 영혼과 튼튼한 신앙으로 가나안에 정착하리라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결심과 훈련뿐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중국에는 간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올해 홍해작전 주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마 8:7)"입니다. 눈물 나도록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금 기운내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느 때보다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참 좋은 주제라 생각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홍해작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도 각자 계획하신 마음의 준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23년 홍해작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새 역사를 목도하는 복된 특새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생각납니다. 홍해작전과 사명자대회로 단련된 서울교회 교인들, "뭐가 달라도 다르것쥬!" 모두 현충일 새벽에 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창 1:26) 그 하나님의 형상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곧 영적존재, 사랑의 본체, 창조본능, 공동체적 존재, 자유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 둘째인 사랑의 근원과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까이 하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5-36)고 하시며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거역하였고 어려운



정병무 은퇴장로 (6교구)

이웃을 외면하였으며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음을 묵상하면서 깊은 회개의 눈이 빠져들 때가 있지요.

내게 아부하는 자가 더 좋아서 그를 더 믿었고 나보다 많이 가진 자에게 더 가까이 하려고 했으니 우리는 속사람이 아닌 겉 사람만을 보는 알팍한 인성에 실소(失笑/어처구니없는 웃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더욱 아첨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누구를 믿을 것인가, 십계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기도로 거룩한 삶의 길잡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 뜻이 가장 먼저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볼 수 없는 눈 먼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1 2:16)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먹음 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창 3:6)에 홀린 것과 같은 그들에게서 스스로의 추악함을 볼 수가 있지요. 얼떨결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신이 앞장서는 모습에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라봅시다.

약 50년 전 제가 주님을 모르던 이방인이

었을 때 아내를 통하여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떠올려 봅니다.

‘어린 아이를 업고 밥을 얻으러 온 애기 엄마(거지)를 안방에 모셔놓고 대접하여 보내던 아내의 신행일치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한동안 다투다가 급기야 교회를 나가야만 알 수 있다는 아내의 마지막 해명에 이끌리어 주님을 영접하게 된 저의 초라한 모습을 돌이켜 반주(反芻/되새김질)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팔을 내밀어 아내를 징검다리로 사용하여 주

시었으니 그 크신 은혜를 이 작은 가슴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나의 가문을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위대한 역사를 돌이켜 보고 부끄러운 저의 믿음의 역사를 밝히면서 자랑이 아닌 간증으로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교회의 3대 비전(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역사 강의 - 한국교회사 50장면 (17)

하와이 이민과 한인교회



존스 선교사



1906년 호놀룰루 한인 감리교회 성도들과 존스 선교사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해외 이민은 1902년의 하와이 이민이다. 하와이는 사탕수수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876년부터 중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는데 중국인 세력이 너무 커지자 서서히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다가 1897년 완전히 금지하였다. 중국인을 대신한 것은 일본인이었다. 하지만 일본인 이민자 역시 그 수가 늘어나자 자주 파업을 일으켰고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사탕수수 농장과의 계약이 만료되면 도시로 진출하여 현지인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결국 중국과 일본이 아닌 제3국의 노동자가 필요해졌는데 그것이 한국이었다. 그런데 이 하와이 이민에 한국교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선교사를 사임하고 주한 미국공사로 활동하던 알렌은 1902년 휴가를 마치고 조선으로 복귀하던 중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 사탕수수경작자협회의 이사 어윈(Wm. G. Irwin)을 만나 하와이에 한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한국에 돌아온 그는 1901년에 든 흥년으로 고민하던 고종에게 백성을 하와이로 보내 척식사업(植植事業)과 신문화를 도입하자고 건의하였다. 이 건의를 받아들인 한국 정부는 이민 사업을 관장할 ‘수민원’을 설립했다. 수민원의 미국 측 파트너는 데셀러(David W. Deshler)가 설립한 ‘동서개발회사(東西開發會社)’였는데 데셀러는 알렌이 이민자 모집의 미국 측 책임자로 위탁한 사람이었다.

수민원과 동서개발회사는 합동 ‘이민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공고문의 내용은 매일 10시

간 노동, 일요일 휴무, 월 15달러 임금 등을 비롯한 노동조건과 하와이의 소개였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한국인의 반응이 너무 없었던 것이다. 이전에도 한국인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가 없지 않았고 연해주와 간도에는 제법 큰 규모의 한국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이전의 이주는 정부의 허락과 지원을 받은 공식적인 이민이 아니었다. 공식 이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한국인이 망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에 한국정부는 해외이민의 절차나 과정에 무지하여 효과적인 모집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에 호응한 것이 교회였다. 특히 감리회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그 계기는 이민자 지원이 부진하자 데셀러가 제물포에서 활동하는 감리회의 존스 선교사(George H. Jones)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이었다. 데셀러가 존스를 찾아왔던 것은 아마도 동서개발회사에서 통역과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한국인들이 존스 선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감리교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존스는 감리교인들에게 하와이 이민을 권장하였고 존스의 설득은 꽤 효과적이었다. 1902년 12월 121명의 첫 이민자가 하와이로 출발한 이래 1905년까지 7,226명이 하와이로 이주하였는데 하와이 이민이 시작되자 제물포 지역의 감리교회 교세가 급감하여 다른 선교사들이 존스를 원망할 정도였다. 특히 교회의 일꾼으로 오랫동안 훈련받던 젊은 한국인 지도자들도 이민자의 통역이나 신앙 지도를 위해 함께 떠나면서 교회는 지도력에 큰 공백까지 생겨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하와이에 도착한 한국인 중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고 종교적 열심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적지 않았던 것은 하와이 한인사회에는 좋은 일이었다. 금세 한인교회가 여기 저기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홍치범, 임정수, 현순 등의 주도로 오하우섬에서 첫 교회가 조직되었고 홍승하와 윤병구는 현지 미국인 목사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 섬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전도하였다. 이런 활동들에 힘입은 한인교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1906년 경 한인교회는 13개의 교회와 35개의 전도소를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수십 명의 목사와 전도사가 활동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1905년 하와이의 한인 수가 7,226명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구심점이었던 하와이의 한인사회는 지속적으로 한국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한국교회는 하와이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교회 지도자를 파송하였고 한인사회는 자신들의 생활이 안정되기 전부터 한국교회와 교회 교육사업을 지원하였다. 1904년 상동교회가 이승만을 교장으로 상동청년학원을 설립하려고 하자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당장에 제물포 지역의 감리교회들은 교인과 인재들을 잃었을지 모르나 이는 더 큰 섬리의 일부분이었다. 훗날 하와이의 한인교회는 고국을 떠난 이들을 위로하고 결집시키는 신앙공동체이자 한국 민족운동의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해 나갔기 때문이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찬양예배 후 제16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공동의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도움 주신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엔 16대 장로로 피택된 백도환 안수집사님께서 좋은 장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16대 장로 후보 투표 1차 결과

1. 백도환 집사
- 2.
- 3.
- 4.
- 5.



5월 24일 수요 입주민 전도 - 리브가전도회와 함께



5월 21일 주일노방 전도

70인전도대 시간 변경

- 시간 : 오후 1시-2시
- 장소 : 603호
- 요일 : 주 일 (자원자)
수요일 (전도회)
토요일 (선교회)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결혼



- 우리 결혼했어요-
지난 주 1교구 서대식 집사·정승자 권사의 장녀 서주희 성도(임마누엘 찬양대 솔리스트)와 이상규 성도(임마누엘 찬양대 솔리스트)가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효준 성도(9교구 엄성웅 안수집사·김해영 권사 차남) 김은경 성도
6월 3일(토) 오후 5시 30분 엘타워 7층 그랜드홀

동정



- 전시회
7교구 전우진 성도(2부 예배 오르기니스 차주연 권사 아들)
5월 27일(토)-6월 4일(주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전관

식사 제공

- 4교구 이영옥 권사, 2교구 이성우 집사·홍성혜 집사 가정
(어머니 고 김업순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5월29일	월	느 8-10		5월29일	월	눅 1-2	
5월30일	화	느 11-13		5월30일	화	눅 3-6	
5월31일	수	에 1-3		5월31일	수	눅 7-9	
6월1일	목	에 4-10		6월1일	목	눅 10-12	
6월2일	금	욘 1-3		6월2일	금	눅 13-17	
6월3일	토	욘 4-7		6월3일	토	눅 18-21	
6월4일	주일	욘 8-10		6월4일	주일	눅 22-24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2023년도 흥해작전이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70인전도대와 전도회, 선교회, 권사회가 함께 하는 전도현장에, 선교지와 후원교회, 비전2030 군선교지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소서.
3.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 |
|--------------------------|---------------------------|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 ◇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